

- ☐ 민주노조 사수
- ☐ 전력산업공공성 강화
- ☐ 생존권 사수
- ☐ 경영평가 무력화
- ☐ 해고자 원직복직

이길구 전 동서발전사장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발

최근 언론을 통하여 MB정부 자원외교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는 4대강 사업과 함께 국가재정을 파탄 낸 대표적 주범으로 손꼽힌다. 공기업을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해외투자를 강행함으로써 정권과 주변인들이 어떤 경제적 이득을 챙겼는지는 아직까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지만, 막대한 국부 유출의 사실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한전 시절 국내 전력기술의 해외진출이라는 명목으로 '해외발전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리스크가 크고 정보가 부족한 해외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은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나 MB가 경제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자원외교'를 대통령의 치적으로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리스크나 정보부족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 각 발전회사 또한 해외사업을 Blue Ocean 이라 칭하면서, 앞다투어 과도한 투자를 시작하였다. 결국 대부분의 해외사업은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고, 지금도 무수한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동서발전의 자메이카 전력 지분(40%) 인수 과정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과 의혹의 완결판이었다. 설비의 상당부분이 폐지를 앞두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연료효율·송배전 손실률 등을 왜곡하고, 수익률을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했으며, 내부 규정도 무시하였다. 그 결과로 정상적인 가격에 비해 적게는 822억원에서 많게는 1,500억원을 더 주고 지분을 인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공기관 복지축소, 담배값 인상,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축소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서민과 노동자의 지갑을 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MB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정책은 손 댈 생각이 없는 듯하다. 감사원은 결과보고서에서 구체적 위법 사실들을 상세히 열거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고,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반대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MB 자원외교 사기 의혹 및 혈세 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경종을 울리고자 지난해 11. 4.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전·현직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와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데 이어, 2015. 2. 23. 전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을 추가 고발하게 되었다.

이길구 전 사장은 발전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공작과 발전노조 파괴의 주범으로 2차례 국정감사에서 문책을 받았고, 최근에는 법원으로부터 발전노조에 4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5. 2. 23 기자회견문 요약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투자 관련 동서발전 이길구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지난 해 11월 감사원은 한국 동서발전의 자메이카전력공사(JPS) 지분 인수 과정에 대해 850억원을 더 비싸게 지불했으며 인수 추진 절차에 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허위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JPS 지분 인수를 주도한 이길구 전 사장(2012년 11월 퇴임)과 전 해외사업팀 개발2담당 A씨(2013년 9월 민간회사로 이직)를 상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손실보전 방안 마련을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3개월이 지난 지금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허비해왔습니다.



이에 MB자원외교에 대한 총체적인 진상규명을 추진하고 있는 ‘MB 자원외교 사기 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 정의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김제남 국회의원)과 이 사업에 대해서 예전부터 모니터링 해왔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현규)은 이길구 전 사장에 대하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동시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감사원이 JPS의 실제 현황을 반영해 재산정한 내부수익률은 이사회에 상정한 12.72%보다 2.42포인트 낮아져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JPS의 적정 지분가치는 2억886만달러로 산정, 7,614만달러(약 805억원)를 더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는데 실제 동서발전에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2011년도 연결재무제표에는 JPS 지분 40%의 가치가 2억780만달러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발인이 마루베니상사와 사전에 합의한 내부수익률 12~13%에 맞추기 위해 절차까지 무시하고 추진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중략]

발전노조가 분석한 지분가치 손실액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이번 지분 가격에 따른 손실액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석이 가능한데 A사 재정자문보고서 초안을 기초로 분석해보면 2억6천2백만달러(2870억원) 정도로 이 경우 손해가 2천3백만달러(251억)정도이며 해외사업심의위원회 의견대로 라면 손해가 7천5백만달러(821억)정도로 볼 수 있으며 만약 2011년 1월 16일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가 매각한 JPS 주식가치로 추산할 경우에는 지분 가치가 고작 1억4천8백만달러(1,625억원) 정도로 이 경우 손해는 1억3천6백만 달러(1,497억)로 추정됩니다.

이렇듯 이길구 전 사장은 동서발전에 천문학적 손해를 끼친 바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길구 전 사장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통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인사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검찰 고발을 진행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힙니다.

기자회견 전체 동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M288IAIaylw>

행복해 지기를 두려워 할 것입니까? 내 권리를 지킴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발전노조 깃발아래 모인 우리들의 결의로, 민주노조의 단결된 힘으로 모든 시련을 넘어 설 수 있습니다.